

화법과 작문 개론

화법과 작문은 출제 유형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Team KUKLL에서는 2022학년도 국어에 선택과목이 출제된 이후 모든 모의고사를 분석하여 각 지문 별 출제 유형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풀이법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시험에서의 배치를 고려하여 화법, 복합, 작문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화법, 작문, 복합의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장함.

※ 해당 분석 내용은 문제 유형에 대한 구분일 뿐, 문제 순서에 대한 구분이 아님. 실제 시험에서 문제의 순서가 다르게 등장할 수 있음(화법, 복합, 작문으로 지문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음).

1. 화법 - 발표문

화법과 작문의 첫 번째 지문은 항상 학생의 발표문으로 제시되어 왔다. 해당 지문은 **4개의 문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유형 또한 다음과 같이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말하기 방식

말하기 방식 유형은 화자가 발표를 하며 보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분석에 관한 문제이다. 해당 유형의 경우, **지문의 첫 문단과 괄호, 물음표**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기에 첫 문단에서 화자의 행동과 발언을 보고 괄호와 물음표 등의 표지에 유의하여 지문을 한번 훑은 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마지막 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으므로 끝을 확인한다.

- 자료 활용 방식

자료 활용 방식 유형은 화자가 발표를 하며 제시한 자료의 발표 내 활용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지문의 내용이 꼭 필요한 경우와 자료가 쓰인 위치와 자료에 대한 해석만 필요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2문단과 3문단**에 필요한 정보가 전부 모여 있기에 해당 부분을 독서론과 관련한 글을 읽듯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은 뒤 문제를 풀이하면 된다.

※ 매우 드물게, 화자의 계획을 제시하고 이것의 반영 여부를 묻는 유형이 출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선지와 지문을 대조 하며 문제를 푼다면 매우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 청중의 반응

청중의 반응 유형은 화자의 발표를 들은 청자의 반응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에서 제시된 청자가 지문의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에** 본 유형은 지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선지와 보기만을 비교**해가며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다.

2. 복합 지문 - 글과 토론

화법과 작문의 두 번째 지문에서는 토론과 글이 제시된다. 토론-글의 순서가 60%, 글-토론의 순서가 35%, 그 외 특이한 지문이 5% 제시된다. 특이한 지문(지문이 3가지 제시됨)의 경우는 단 한번 출제되었고, 최신 기출이 아니므로 다루지 않는다. **토론-글이나, 글-토론이나에 따라 문제 유형은 달라진다.** 그러나 문항의 개수는 4-5개로 동일하며, **아래의 3가지 유형은 고정적으로 출제된다.** 또한 앞선 지문이 뒷 지문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동일하다.

- 발화 의도 분석

토론 부분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위의 경우, 해당하는 부분만을 찾아 **비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 (가), (나) 복합 문제

(가)와 (나)를 연계하여 연관성을 묻는 질문이다. 다만, **(나)의 내용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찾기 때문에 <보기>가 제시된다면 <보기>와 함께 (나) 지문을 꼼꼼히 읽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나) 지문을 읽을 때 해당 지문의 **키워드간 관계를 정리**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쉬워진다. 글 - 토론 구조에선, 글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와 토론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 모두 출제되기에, 열심히 읽어보자.

- 퇴고

작문 파트에서의 퇴고 유형과 마찬가지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드물게 하나의 유형이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제삼자의 글을 <보기>를 통해 제시하는 유형인데, 이는 글-토의 구조의 지문에서만 출제되어왔다. 해당 유형의 문제는 제삼자의 글에 반영된 생각을 추론하는 문제로서, 다른 퇴고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지 않은 채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위의 3가지 유형과는 별개로, **불규칙적**으로 등장하는 유형도 다루어보도록 하자.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자의 역할

토론-글 구조의 지문에서 자주 제시되며, 토론을 이끌어가는 학생(주로 학생 1)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음 주제를 자연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등의 선지가 제시되며, 발화 의도 분석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통해 쉽게** 풀 수 있다.

- 글의 구조

작문 영역에서 나오는 유형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저자가 구상한 글의 짜임새를 묻는 문제이며, 계획 반영 여부의 형식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글의 문단별 소주제**를 정리한다면 쉽게 풀 수 있다.

3. 작문 - 작문 배경과 글

화법과 작문의 세 번째 지문에서는 항상 작문 배경과 이를 통해 작성한 글이 제시된다. 작문 배경은 토막글부터 자료까지 다양하다. 해당 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 유형이 고정적으로 출제된다.

- 계획 반영 여부

<보기>를 통해 글 작성 계획과 지문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이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글의 **문단별 소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만을 빠르게 읽으며 각 문단의 소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와 지문을 비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퇴고

본 지문에서 퇴고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 글의 특정 부분을 조건에 맞게 수정한 결과를 고르는 유형
- 글의 특정 부분이 수정된 결과와 이에 영향을 준 조언을 고르는 유형
- 글의 빈칸과 조건을 제시하여 가장 올바른 작문을 고르는 유형

모든 유형은 보기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조건에 맞게 작문을 하는 유형의 경우 글의 특정 문단에서 드러나는 내용의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하는 부분만 빠르게 읽고 문제를 해결한다.

- 자료 활용 계획

지문의 글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보충하는 방법을 묻는 유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단별 소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계획 반영 여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리한 문단별 소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료가 나타내는 의미와 활용 양상, 소주제를 바탕으로 지문 내 위치를 결정하자.

이상이 선택과목 개정 이후 모든 화법과 작문 시험의 유형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독자들은 본 글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간 단축과 점수 향상을 이루길 바란다!